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채권전략 안예하 yhahn@kiwoom.com



2월 금통위 Review: 동결 굳히기

Check Point

- 한국은행 2월 금통위 만장일치 동결. 성장을 전망 2.0%로 상향 조정하면서 최근의 경기 개선과 주가지수 상승 등을 반영한 한편, 내년 성장률은 1.8% 수준으로 소폭 하향 조정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킴
- 한편 이번 금통위에서는 기존 구두로 언급하던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 대신 6개월 조건부 금리 전망 점도표, K 점도표를 제시. 각 위원별로 3개씩 점을 찍어 금리 전망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총 21개 점 가운데 16개는 2.50%, 4개 점은 2.25%, 1개 점은 2.75%로 제시된 점을 고려, 향후 인상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킨 것으로 판단
- 반도체 중심의 수출과 경제 성장으로 경기 개선 기대가 여전히 높으나 양극화 확대 흐름이 이어진다는 한국은행의 평가 등을 고려하면 한국은행은 당분간 금리 동결 구간을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 인상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국고 3년물은 기준금리와의 스프레드가 50~60bp 수준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 최근 인상 우려가 완화되면서 금리 레벨이 하락했으나, 통화정책 기초가 금리 인하 기대로 전락되는 것이 아니라면 금리 추가 하락 속도는 완만해질 것으로 보며, 박스권 흐름이 지속될 전망. 국고 3년물 상반기 중 2.95~3.25% 등락 전망 유지.

한국은행은 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50%로 만장일치 동결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반도체 중심의 수출 개선과 주가지수 상승 등 경기 회복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올해 성장을 전망치는 2.0%로 상향 조정되었다. 다만 내년 성장률은 1.8% 수준으로 소폭 낮추며 경기 모멘텀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는 경기 개선을 인정하되, 이를 곧바로 긴축 강화로 연결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해석되며 시장의 금리 인상 우려를 일정 부분 완화시키는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금통위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변화다. 기존의 3개월 구두 포워드 가이던스 대신 6개월 조건부 금리 전망을 점도표 형태로 제시하는 이른바 'K 점도표'를 도입했다. 각 위원에게 3개씩 점을 제시해 총 21개의 전망이 공개됐는데, 이 가운데 16개가 현 수준인 2.50%에 위치했고 4개는 2.25%, 1개만이 2.75%를 가리켰다. 분포를 감안하면 금리 인상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며, 오히려 일부 인하 가능성까지 열어둔 구조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시장에 형성됐던 선제적 인상 우려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금통위는 그간의 금통위와 달리 다소 비둘기적이었다고 판단한다. 작년 4분기부터 이어온 금통위는 인하 기대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상 우려를 용인하면서 매파적인 입장을 보였다면, 이번 금통위는 동결로의 기대를 굳히는 과정이라고 판단한다. 특히 1월과 비교하면 환율과 부동산 가격 부담이 일부 완화된 것으로 평가되면서 인상에 대한 우려를 잠재울 수 있었던 배경으로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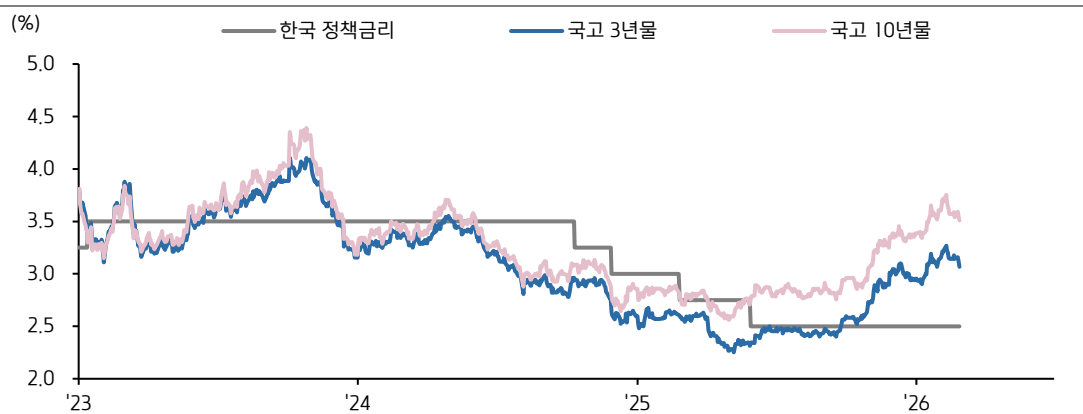
한편 이창용 총재는 이번 간담회에서 양극화 심화에 대해 언급했다. 반도체 수출 성장에 따라 IT 부문과 비 IT 부문 성장 양극화를 지적했으며, 이를 고려하면 인상도 인하도 모두 어려운 국면이라는 점을 언급했다고 본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과 성장 개선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한국은행은 동시에 소비·내수 부문과의 양극화 확대를 지적하며 경기의 질적 측면에 대한 경계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성장을 상향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 기조를 서둘러 조정하지 않는 배경이다. 이런 환경을 고려하면 한국은행은 당분간 기준금리 동결 구간을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시장 금리 측면에서는 인상 우려 완화 과정에서 국고 3년물이 기준금리 대비 50~60bp 내외의 스프레드를 유지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금리 인하 구간 이후 동결 구간에서 국고 3년물 금리가 기준금리 대비 평균적으로 50bp 높은 레벨에서 등락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시장금리는 3% 내외에서 등락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 과정에서 4월부터 시행되는 WGBI 편입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입 등이 시장금리 레벨을 일부 낮출 수 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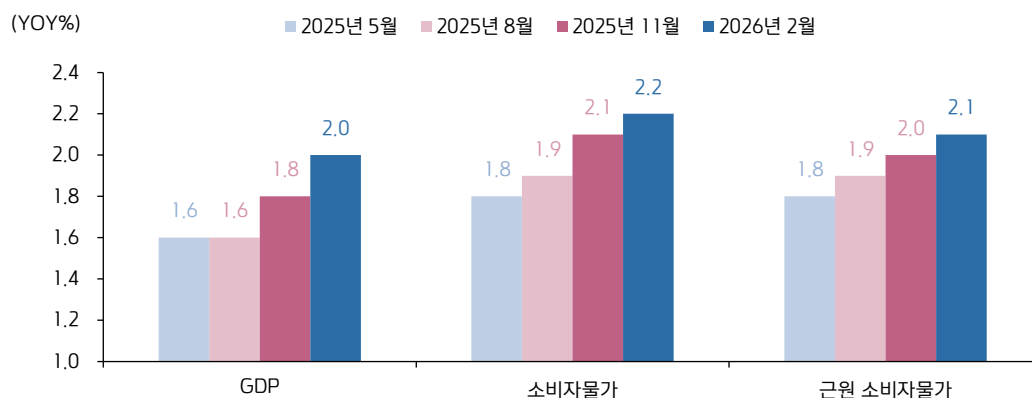
다만, 최근 한국은행의 구두 개입성 코멘트로 인상에 대한 우려가 후퇴하며 금리 레벨이 낮아졌으며, 금일 금통위의 6개월 조건부 금리 전망 점도표를 통해 추가적으로 인상 우려가 낮아졌다고 판단한다. 현 레벨에서 추가적으로 낮아지기 위해서는 결국 인하 기대로 전화되는 국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인하 기대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면 현재 레벨에서 추가 하락 속도는 제한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반도체 중심의 추가 성장과 주가지수 상승 등의 모멘텀이 존재하는만큼 인하 기대가 되살아나는 어렵다. 결과적으로 시장금리는 현재 레벨에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방향성을 띄기보다는 완만한 박스권 등락이 이어지는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국고채 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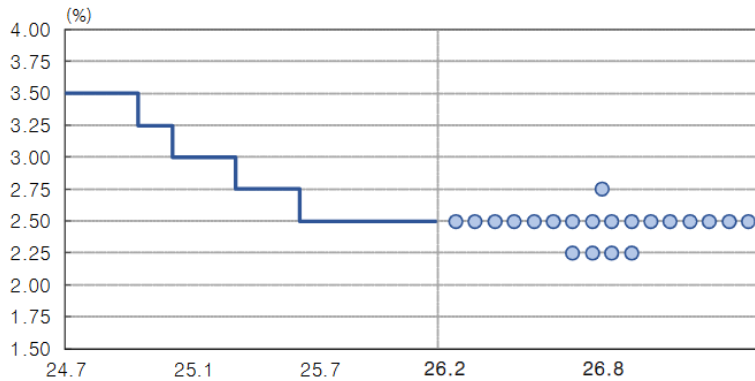
한국은행 2026년 경제 전망치 변화



자료: 한국은행,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한국은행 금통위원 6개월 조건부 금리 전망

금통위원의 6개월 후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26.2월)



자료: 한국은행,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1) 금통위원은 각자의 6개월 후 금리전망을 3개의 점으로 제시

주2) 금통위원이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을 기초로 각자의 전망을 반영하여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되고 금융안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준금리 수준을 의미

주3) 각 금통위원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기준금리 전망의 확률분포를 반영하여 3개의 점을 제시. 예를 들어, 점 2개와 1개로 서로 다른 금리수준에 나누어 제시할 수 있으며, 점 3개를 모두 동일한 금리수준에 제시하거나 점 3개를 각각 다른 금리수준에 제시할 수도 있음

통화정책방향문 비교

	2026년 1월 통화정책방향	2026년 2월 통화정책방향
정책결정	금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물가상승률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성장은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금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 근처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은 예상보다 양호한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세계경제	세계경제는 미국 관세정책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정책, AI 관련 투자 지속 등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며, 물가경로는 국가별로 차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장기 국채금리가 주요국의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 약화, 재정건전성 우려 등으로 상승하였고 미 달러화는 약세를 나타내다 예상보다 양호한 경제지표의 영향 등으로 강세로 전환되었다. 주가는 기업실적 개선 전망으로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의 통화-재정정책 변화, 글로벌 통상환경,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는 미국 관세정책 관련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AI 관련 투자 확대,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며, 물가경로는 국가별로 차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전반적인 위험회피심리가 다소 강화되었다. 장기 국채금리가 주요국 재정건전성 우려, 미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에 영향받으며 상승하다가 하락하였으며, 미 달러화는 엔화 강세,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계 무효판결 등으로 약세를 나타냈다. 주가는 기업실적 개선을 반영하여 대체로 상승 흐름을 이어갔으나 AI 과잉투자 및 기존 산업 대체 우려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 통화-재정정책 및 통상환경 변화, AI 투자 및 지정학적 위험의 전개 상황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경제	국내경제는 건설투자 부진에도 소비 회복세와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개선 흐름을 지속하였다. 고용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이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내수도 소비 회복세 지속, 건설투자 부진 완화 등으로 개선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금년 성장률은 지난 11월 전망치(1.8%)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도체 경기의 상승세 확대, 예상보다 양호한 주요국의 성장 흐름 등으로 상방 리스크가 다소 증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경제는 소비 회복과 수출 호조에 힘입어 개선세를 지속하였다. 고용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건설투자 부진이 이어지겠으나 소비 회복세가 지속되고 수출 및 설비투자 증가세도 반도체 경기 호조 및 양호한 세계경제 성장세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년 성장률은 지난 11월 전망치(1.8%)를 상회하는 2.0%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성장경로에는 반도체 경기 및 내수회복 속도, 주요국 통화-재정정책 및 미 관세정책, 지정학적 위험 등과 관련한 상·하방 리스크가 잠재해 있다.

소비자물가	국내 물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가격 상승폭 확대에도 농축수산물가격 오름세 둔화 등으로 12월 중 2.3%로 소폭 낮아졌으며,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2.0%를 나타내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2.6%로 전월 수준을 유지하였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 안정세 등으로 점차 2% 수준으로 낮아지겠지만 높아진 환율이 상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년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11월 전망치(각각 2.1%, 2.0%)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물가경로는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물가를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가격 및 농축수산물가격 오름세 둔화 등으로 1월 중 2.0%로 낮아졌으며,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2.0%를 나타내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2.6%로 전월 수준을 유지하였다. 금년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은 전자기기 등 일부 품목의 비용상승 압력으로 지난해 11월 전망치(각각 2.1%, 2.0%)를 소폭 상회하는 2.2% 및 2.1%로 전망된다. 향후 물가경로는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시장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다가 달러화 강세 및 엔화 약세,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거주자 해외투자 지속 등으로 다시 1,400 원대 중후반으로 높아졌다. 국고채금리는 금리인하 기대 약화로 상당폭 상승하였다가 다소 낮아졌으며, 주가는 반도체 등 주요 업종의 실적 개선 기대로 큰 폭 상승하였다.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 증가규모 축소, 기타대출 순상환 등으로 둔화 흐름을 이어갔으나, 수도권 주택가격은 여전히 높은 오름세를 이어갔다.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원/달러 환율은 거주자 해외증권투자, 외국인 주식매도 등 수급부담과 엔화 등 주변국 통화 움직임에 영향받으며 등락하다가 최근 상당폭 하락하였다. 주가는 주요 업종 실적호조 전망, 자본시장 제도개선 기대 등에 힘입어 큰 폭의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 글로벌 증시 움직임에 영향받아 변동성은 확대되었다. 국고채금리는 금리인하 기대 약화, 머니무브 등에 따른 수급부담으로 상당폭 상승하였다가 일부 되돌려졌다. 가계대출은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기조 지속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으며, 수도권 주택가격은 정부 대책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둔화되었지만,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책방향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성장 개선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경로에 상방 리스크가 다소 증대된 것으로 판단되며, 물가상승률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높아진 환율이 상방 리스크로 잠재해 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높은 환율 변동성 등과 관련한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해 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소폭 높아지겠지만 목표수준 근처에서의 안정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성장은 개선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리스크, 환율 변동성의 영향 등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해 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다.
정책결정		금번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서는 금융통화위원 7명 모두 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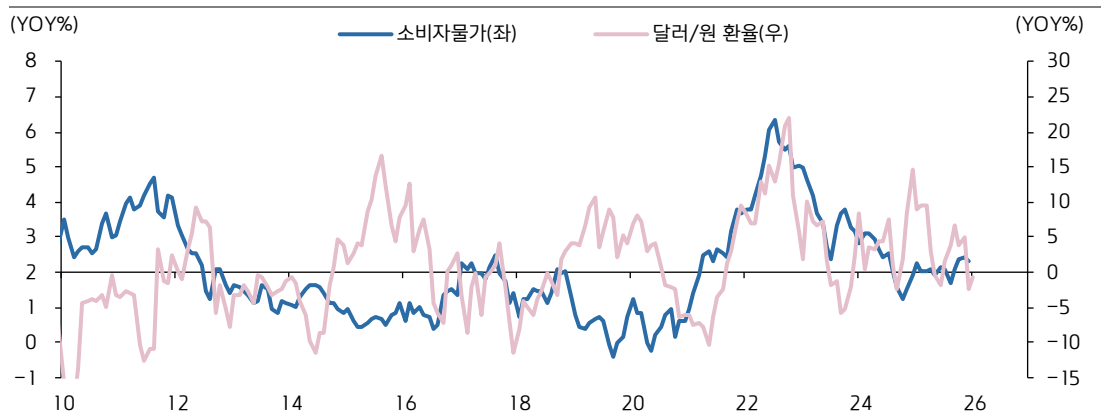
금통위 기자회견 질의응답 정리

질문	응답
개편된 조건부 금리 전망 제시 배경은?	6개월 후 기준금리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조건부 전망. 2.5% 16개 점, 2.25% 4개, 2.75% 1개. 논의 후 익명으로 점을 찍음.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토론을 같이하되 누가 어떤점을 찍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움. 전반적인 논의 내용을 보면, 낮게 제시한 경우에는 회복세가 있지만 K자형 회복이기 때문에 부문간 회복속도가 커서 성장 회복을 도울 필요. 6개월 후에는 금융안정이 더 안정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 2.75% 1개 점은 물가 상승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짐작.
이번 회의 3개월내 금리 전망은?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 얘기할때 한국은행이 좀더 정보를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했던 것이며, 6개월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하려면 분기 전망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분기 전망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졌던 부분이 있어서 늦어졌음. 분기 전망에 대한 성과 비교 발표도 할 예정이며, 이를 근거로 한 점도표 개선 방안을 하기로 했고, 아직 1년까지 확대되지 못한 이유는 우리나라는

	위낙 소규모 경제이기 때문에 1년은 해외의 3년 수준이라고 판단. 시장과의 테스트와 소통을 거치면서 확대해나갈 예정. 왜 3 개로 했는가에 대해서는, 3 개월할때는 표 1 개만 했음. 누가 이 점을 찍었는지를 고민하기보다는 3 개를 하는 것이 익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확률분포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 집행부의 경제 예상을 두고 금통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점도표를 찍어내는 것. 한은 집행부의 의견에 금통위원들이 각자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 앞으로 수개월 정도는 3 개월 전망 힌트도 드릴 예정. 이후에는 3 개월 포워드는 하지 않을 예정. 3 개월은 6 개월과 달리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논의는 없었음.
올해는 GDP 갭 플러스 전환된다면 내년은? 내년도 플러스 전환될지?	올해 성장은 잠재성장보다 높은 수준, 내년 1.8%는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수준. 지난해 성장이 1.0%였고, GDP 갭은 26 년에 마이너스 유지, 27 년 중 하반기로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보임
성장을 전망 상향 조정, 가계 부채, 환율 안정. 앞선 통방과 비교할 때 금리 상하방 요인이 모두 약해진다고 봐야하는지? 시장금리에 대한 평가는?	상하방 조정 요인이 사라진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는데, 점도표를 보면 대부분 2.5%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면 적어도 6 개월 사이에는 올리거나 내릴 가능성이 적은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 3 년 만기 금리가 3.2%까지 올랐다가 기준금리와의 격차가 60bp 이상으로 가서 인상기로 가까워지는 수준이기 때문에 최근 인터뷰와 같이 내부에서는 스프레드가 과다하다고 생각. 따라서 6 개월 포워드 가이드언스를 보더라도 높은 수준이 아닌가 생각. WGBI, 포워드 가이드언스 등의 영향을 살펴보면 필요하면 개입을 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필요한 수준인지는 말씀드리기 어려움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집값을 내리는 효과가 있는지? 거시건전성 강화 방안에 동의하는지?	부동산 데이터를 보면 오름세가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변화가 주택시장 장기적 안정화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공급정책, 세제정책, 궁극적으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해야 가능. 정책이 일관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가능. 한국은행은 부동산 대출을 통한 가계 대출이 너무 급증해서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줄여야 하고,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는 것은 장기적 발전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세제 형평성 또한 해소할 필요. 지속적인 정책 필요.
금융 불균형 우려. 환율과 부동산 우려는 지난 1 월에 비해서는 낮아진 것으로 봄. 앞으로 통화정책을 바라볼때 어떤 요인을 주요로 봐야하는지.	부동산에 대한 우려와 환율에 대한 우려가 줄었냐라고 하면, 어제부터 환율이 떨어진 것이라 좋다고 보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 국내 수급 요인은 조절을하고 있지만 최근 미국 AI 주식 영향, 대법원 판결에 따른 영향, 일본 재정정책에 대한 우려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해외 요인이 상당히 크게 영향이 있을 것. 환율이 안정됐다고 보기는 안심하기 이른 상황. 특히 부동산은 정부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융안정 우려가 완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 물가 뿐만 아니라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는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 물가는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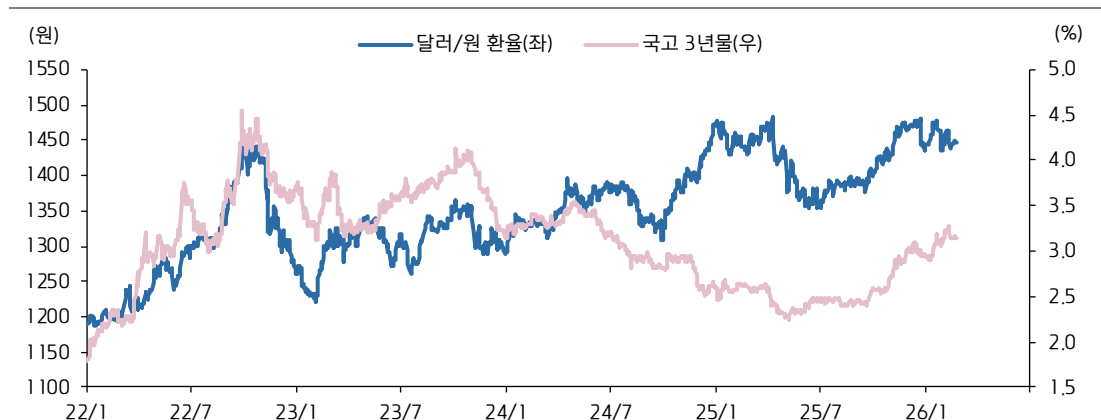
	안정되어 보이나 환율과 유가를 좀더 봐야함. 물가, 금융안정, 성장 등을 보면서 조정해나갈 것
양극화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	양극화 문제는, 한국은행은 중장기적인 구조조정 시리즈를 통해 정책 제안을 하지만, 금리만으로 양극화를 해결하기 어려움. 우리나라는 양극화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보임. IT 중심의 성장, 비 IT 중심의 둔화, 간극이 상당히 커질 것. 주가가 상당히 올라갔는데, 상위소득자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혜택의 정도가 소득별로 차이가 있을 것. AI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1년 사이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기술발전으로 양극화 문제가 사회문제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 양극화에 대비해야 함.
7월 24시간 외환시장 개방. 3교대, 알고리즘, 인프라 구축, 한국은행 차원에서는 어떤 준비가 되고 있는지?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2시반에서 3시까지 확장해서 하고 있고, 7월 경 24시간 연장 예정. WGBI 도 들어와서 결제도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 한은 금융망이 3월말부터 8시까지 연장될 예정. 해외투자자들이 WGBI 가 이런걸 원해서 들어올때 위험관리를 위해서는 파생 시장에도 접근이 필요. 기준금리가 이제까지는 CD 였지만 KOFR 준비를 해왔고, WGBI 자금 유입될텐데 3월 경에는 KOFR 로 갈 계획이며, 확실히해서 금융위가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WGBI의 성공으로 해외 투자 유인, MSCI 선진국지수로 가는 준비단계로 노력 중.

달러/원 환율과 한국 소비자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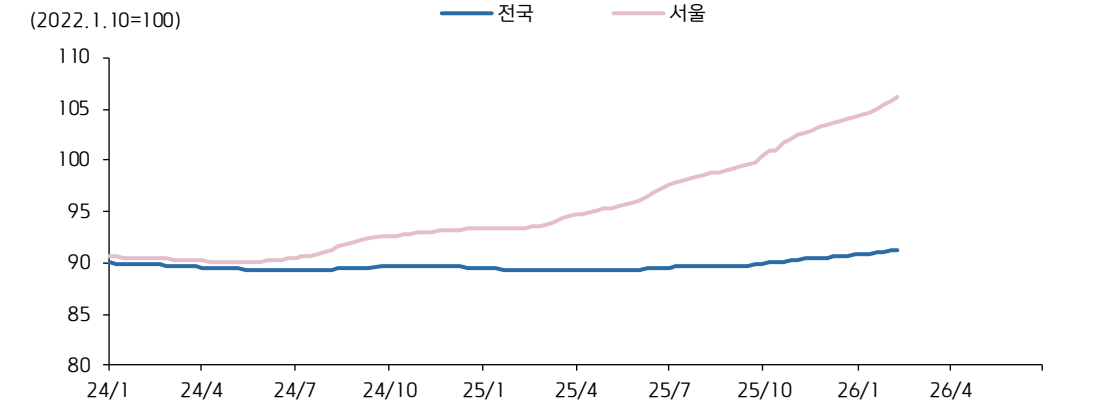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달러/원 환율과 국고 3년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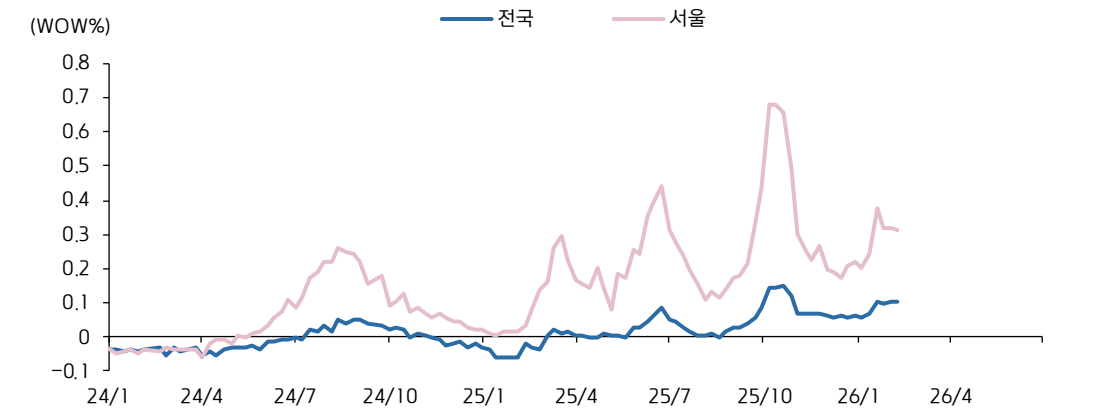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전국 아파트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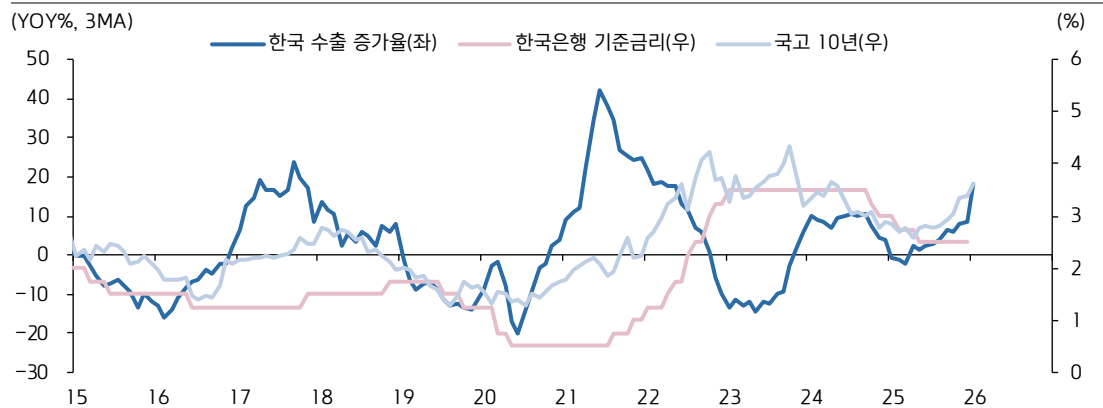
자료: KB 부동산 데이터 허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전국 아파트 가격 전주비 추이



자료: KB 부동산 데이터 허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한국수출과 기준금리, 국고 10년물 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